문병란 시인 추모사업 한·일 공동 추진

주오대 히로오카 교수 방문
기념사업회와 협의
내년 중 작품집 공동 발간
심포지엄 개최하기로

서은문병란기념사업회와 히로오카 일본 주오대교수는 문병란 작품집 한일 공동 발간 등 추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4년 히로오카(오른쪽) 교수가 문병란(가운데) 시인을 예방했을 당시 모습. 왼쪽은 문병란의 시를 소개했던 전남과학대 김정훈 교수.

"여기 한 평생 짖다가 간 똑똑한 바보가 묻혀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있는 시인 문병란의 묘비에 새겨진 글귀다. 문병란 시인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꿈꾸며 독재 정권에 맞섰던 남도가 배출한 대표 시인이다. 그는 평생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을 우러르며 문학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시대의 선각자였다.

많은 문인들은 그를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과 "거리의 교사"로 기억한다. 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고초를 당했지만 줄곧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조선대학교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서은문학연구소를 열어 문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용아 박용철기념사업 등 지역문학의 현안에도 문단 어른으로서 힘을 쏟았다.

서은 문병란(1934~2015) 시인을 기리는 추모기념사업이 한일 양국에서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 일본의 사회현상 분석의 권위자이자 시인인 주오(中央)대 히로오카 모리호(廣岡守穗)교수가 29일 광주를 방문, 김준태 시인 등 서은 문병란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한 데서 알려졌다.

1951년 가나자와시(金澤市)에서 태어난 히로오카 교수는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했으며, 정치사상사를 전공했다. 현재는 일본 주오대에 재직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뿐 아니라 문학과 한·일 문화현상에 대해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일본에서 광주5·18민주화 운동과 문병란 문학세계를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히로오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은 문병란 문학연구소(이사장 황일봉)에서 기념사업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서의 문병란 기념사업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내년 중 문병란 작품집의 한·일 동시 출간을 목표로 양국 문인 교류와 인터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서은 문학회 황일봉이사장, 김준태·이창민 시인,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해 문병란 시인의 추모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오후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 문병란 시인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다.

히로오카 교수는 앞서 김준태 시인과의 대담에서 "일본에 시를 쓰는 시인은 많지만 민중시를 쓰는 문인은 거의 없다"면서 "문병란 시를 열심히 번역 중인데 내게는 희귀하고 귀한 경험"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80년 5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사건들을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시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위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펜'으로 민주주의 선봉에 섰던 고 문병란 시인과 김준태 시인을 알게 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시인은 "시인이라면 나의 슬픔과 기쁨을 노래하기보다 주변의 고통을 노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라면서 "문병란 시인의 시는 지식인을 위한 시가 아니라 고통받고 억압받는 다수의 민중들을 위한 시였다"고 강조했다.

히로오카 교수가 광주 민주화운동과 문병란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수년 전,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와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김 교수가 2000년대 후반 일본의 인터넷신문 'JANJAN'에 '광주통신'이라는 기획으로 한국의 시대상을 고발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JAN→JAN'의 편집주간이 히로오카 교수였다.

이 같은 인연을 매개로 김 교수는 일본에서 연구서 '소세키와 조선'을 발간하고 일본 주오대 초청으로 현지 보고회를 가졌다. 히로오카 교수는 2013년 남부대 강연과 2014년 5·18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광주와의 교류가 시작됐다.

김정훈 교수는 "당시 문병란 시를 번역해 소개했는데, 히로오카 교수가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처음으로'라는 시집을 내기도 한 히로오카 교수는 광주와 5·18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문 시인의 문학에 심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서은 문학회 황일봉이사장은 "히로오카 교수님은 5.18 정신과 문병란 문학에 매료되신 분"이라며 "금번 사업협의를 계기로 일본에서 5.18 정신과 문병란 문학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 '동주'

아름답고 슬픈 '청춘'

광주극장 '시네마 가이드 맵' 6월 2일 신형철 교수 '동주'

광주극장이 진행하는 '시네마 가이드 맵'은 각기 다른 전공 분야에서 활동중인 관객 6인이 추천한 영화를 상영하고 그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의 장이다.

6월2일(오후 7시)에는 '왕의 남자' 등을 만든 이준익 감독의 '동주' 상영 후 이야기가 진행된다. 6억원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동주'는 일제 강점기 한집에서 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 동주와 몽규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개봉 당시 110만명의 관객을 모았으며 주연을 맡은 강하늘과 박정민의 연기도 인상적이다.

'동주'를 추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는 문학평론가 신형철(사진·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다.

이후에는 '하늘을 걷는 남자'(7월16일·유맹철 광주시네마테크 국장), '아무르'(9월22일·나희덕 시인), '더 랍스터'(10월 20일·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등을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관람료 6000원. 문의 062-225-885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 6월 5일 '단오맞이 한마당'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2016 단오맞이 어울림 한마당'을 오는 6월5일 개최한다.

오후 2시부터는 '제6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열린다.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이 구연·노래·낭송 등을 펼치며 전라도 말을 겨룬다. '질로 존 상'(대상) 1명, '영판 오진 상'(금상) 2명, '어찌끄나 상'(장려상) 3명, '배꼽 뺀 상'(인기상) 5명을 선정, 총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우리 옷을 가장 곱게 차려입은 한 명을 뽑아 '옷맵시상'을 시상하고 전라도말 알아맞히기와 경품 추첨을 통해 즉석에서 상품을 증정한다.

각종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오전에는 이은경 전통의례음식연구소장과 함께 수레바퀴 문양을 찍은 수리취떡을 만들고 단오절식에 대해 알아본다. 오후에는 담양공예협회가 참여해 대나무 단오부채, 대나무 반지, 대바구니, 죽제필통 등 공예품 만들기를 진행한다. 수리취떡 만들기는 광주시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기타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모집한다. 문의 062-613-536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미경 가야금 독주회 '성금연류 산조'

6월 1일 빛고을 국악전수관

김미경 가야금 독주회가 오는 6월 1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광주 출신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이번 무대에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를 선보인다.

고(故)성금연(1923~1986) 명인에 의해 완성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다양한 유파 중에서 가장 화사하고 경쾌한 가락을 자랑한다. 또 담백하고 간결한 가락이 특징이며 조와 장단의 다채로운 변화와 어우러지는 즉흥성이 돋보이는 산조다.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와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사)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공연의 장구 반주는 이태백 목원대 교수가 맡는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태백(목원대 교수)의 장구와 함께 한다. 02-703-65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10회 광고문학상 백일장 48개교 741명 참가

光高문학상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총동문회와 광고장학재단이 후원하는 '제10회 광고문학상 백일장 ' 대회가 최근 광고 교정 일원에서 열렸다.

'노벨문학상에 도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48개교 741명이 참석해 저마다의 실력을 겨뤘다. 글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글제는 '열쇠', '오늘', '만남'으로 학생들은 원하는 글제를 택해 글을 지었다.

심사는 광주문인협회의 중견 작가들이 맡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등부 ▲대상-나연수(경신중 산문), ▲금상-김희진(상일중 산문), 이수아(경신중 시) ◇고등부 ▲대상-문준성(살레시오고 시), ▲금상-허우령(세광학교 시), 신경지(세광 학교 산문)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